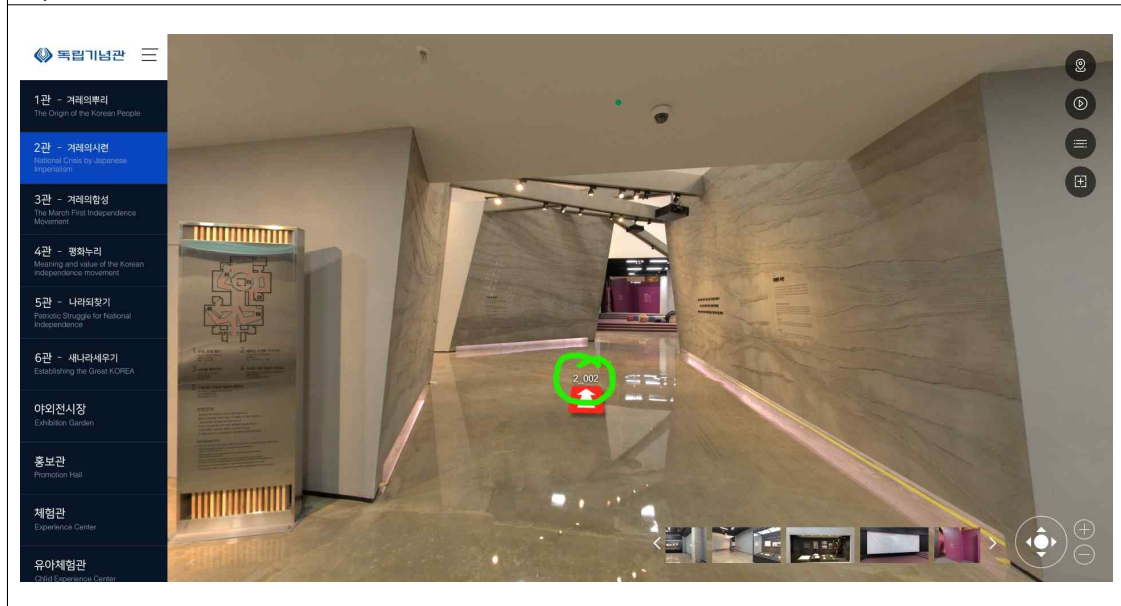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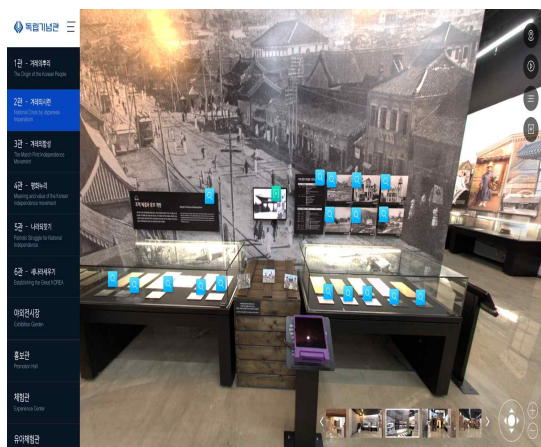
근대국가로의 여정, 개항기에서 대한제국까지 해설서

◆ 사이버 전시관 관람순서

2_002(입구 사진) 클릭 → 2_003, 004, 006 클릭 → 2_007(근대거리 사진) 클릭 → 2_010(우체부와 우정국 사진) 클릭 → 2_014(독립문 사진) 클릭 → 2_015 클릭 → 2_016(갑오개혁 사진) 클릭 → 2_017(광무개혁 사진)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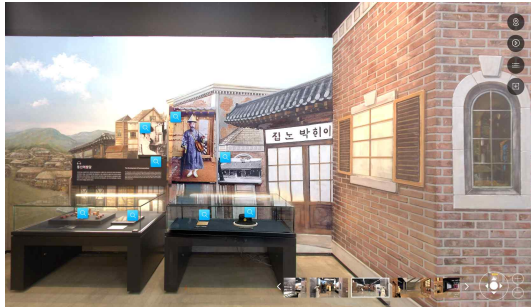


개항과 근대문물



2_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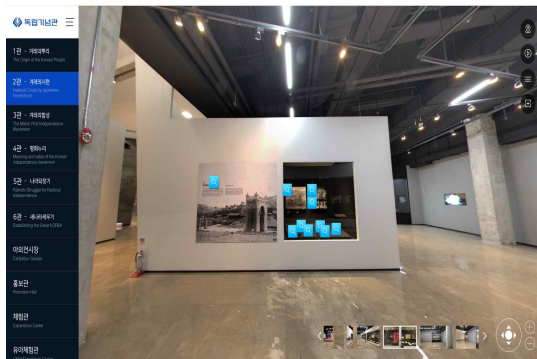
조선은 개항 뒤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부산, 원산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시계, 라디오, 유성기 등 서구의 발명품이 우리나라에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명동성당 등 서양식 건물이 세워지고, 도로가 정비되고, 전차와 자동차가 질주했습니다. 1899년 서울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전차가, 1900년에는 노량진과 인천 사이에 기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전차를 ‘쇠당나귀’, 기차를 ‘불을 내뿜으며 달리는 수레’라는 뜻으로 ‘화륜거’라고 불렀습니다.



2_010

1885년에는 서울과 인천사이에 전보를 보낼 수 있었고, 1896년에는 덕수궁을 시작으로 전화도 등장했습니다. 당시 전화기를 영어 텔레폰과 비슷하게 발음해 ‘덕를풍’, ‘다리풍’이라고 불렀습니다. 1884년 우정국이 설치되어 우편물을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초기에 우표를 ‘우초’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기에 석유와 전등이 등장했고, ‘서양부싯돌’이라고 불린 성냥도 등장했습니다.

독립문과 독립협회



2_014

조선은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받아들이고 새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며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웃한 일본과 청나라, 멀리 서양 강국들의 간섭과 침략의 위협 속에서 조선이 자주국가임을 알리고 백성을 단결시키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1896년 서재필을 중심으로 독립협회가 조직되었고 1897년 독립의식을 높이고자 청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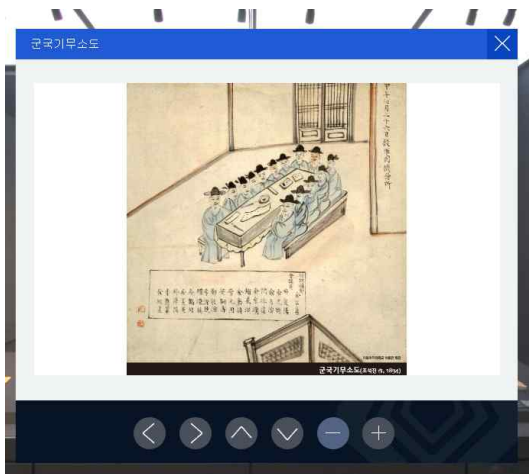
서재필은 독립문을 세우기 전에 정부의 지원으로 손 한글로 만든 독립신문을 발간해 나라 안팎의 사정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자주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독립협회는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라는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지식인 뿐 아니라 나무꾼, 어린 아이, 부녀자, 기생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 정부가 벌이는 일이나 무능한 관리를 비난하는 등 이전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도 당당하게 토론에 나섰습니다.

갑오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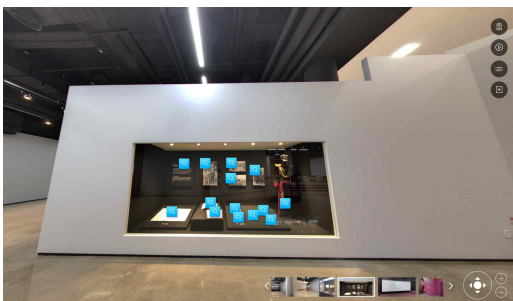
2_016

개항 이후 열강의 침략이 계속되면서 국가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조선 정부는 1894년~1896년까지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개혁을 추진했는데 이를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항 뒤 조선의 외교와 통상을 담당했던 영의정 김홍집을 책임자로 삼아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심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이때 고종을 시작을 시작으로 머리를 서양식으로 짧게 자르고, 오랫동안 사용했던 음력 대신 태양력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관리들의 의복을 서양식으로 바꾸고, 과거시험과 노비제도를 없애고, 길이, 넓이, 무게 등의 단위를 하나로 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어린 나이에 혼인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일상에 변화를 줄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광무개혁



2_017

고종은 1897년 10월 왕권을 바로 세우고 자주국임을 강조하기 위해 환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지금의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국국제'를 반포해 대한제국은 황제에 무한한 권력이 집중된 전제국가임을 알렸습니다.

고종황제  < > ^ v - + 대한제국 장교  < > ^ v - +	고종황제는 근대화 사업에 힘쓰고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근대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를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 것을 참고한다.’는 ‘구본신참’을 원칙으로 삼아 은행, 공장, 회사를 설립해 상업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도로를 넓히고 전기를 이용한 전차를 들여오고, 전화를 도입하고, 경인철도를 건설했습니다. 의학교, 외국어 학교 등 각종 학교를 세우고 외국에 유학생을 보내 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많은 재정을 들여 황실 친위대, 서울을 호위하는 진위대, 지방을 지키는 지방대대를 새로 만들어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참가하고 목포, 군산 등 여러 항구를 추가로 개항했습니다.
---	---